

2021  
06

# 병리협보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Technologists News



www.kamt.or.kr

등록번호 성북 라 00009호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전문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원활한 병리협보 배송을 위해 홈페이지에서 도로명주소·5자리 우편번호로 개인정보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 CONTENTS

### 01 COVER

의료기사법 개정안 입법발의

### 02 KAMT NEWS

중앙회 소식

### 04 KAMT NEWS

시도지회 소식

### 05 KAMT NEWS

'KAMT 특공대'  
유튜브 채널 추진

### 제461호

#### 병리협보 제작에 도움주신 분들

- Global Standard of Reference Lab.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 고객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총일화학
- Bright Technology, right decision 브라이텍
- UNI-VERSITY를 넘어 NEW-VERSITY로 신한대학교

발행인 장인호 / 편집인 김 철  
편집위원 김대중, 장성호, 이지혜  
기자 이호성  
디자인·인쇄 혜성디자인

Tel : 02)469-0577

발행소 (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

Tel : 02)3291-5435

Fax : 02)3291-5621

## 의료기사법 개정안 입법발의

‘지도’ → ‘의뢰 또는 처방’ 개정

민주당 남인순 의원, ‘의료기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기사단체들이 의료기사 권익증진 차원에서 의료기사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에서 ‘의뢰 또는 처방’으로 개정하는 방안이 입법 추진된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아도 의료기사가 의사로부터 의뢰나 처방을 받으면 관련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5월 17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남인순 의원 외에 민주당 김민철, 윤재갑, 한병도, 강선우, 김원이, 서영석, 이규민, 정성호, 황운하, 박홍근, 양기대, 최혜영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강은미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남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기사를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은 과잉 규제이며 의료 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에만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면 의사가 상주해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의뢰 또는 처방으로 가능하게 하면 의사가 없는 지역사회에서도 의료기사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논거이다.

이에 남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사 정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의료기사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협력적 관계를 조성하고 의료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제1조의2(정의) 1항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서 ‘지도 아래’를 ‘의뢰 또는 처방에 따라’로 개정토록 하고 있다.

한편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남인순 의원 입법발의안에 대하여 회원들에게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국회 입법안 사이트 찬성 의견 댓글 달기에 협조해줄 것을 주문하는 동시에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각 단체와 함께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성취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임상병리사협회는 △감염관리실 임상병리사 인력배치 △검사 건수당 임상병리사 수 법제화 등의 정책 과제 해결을 위해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18대 국회 때인 2013년 6월 18일 이종걸 의원(민주당)은 의료기사법 개정안에서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를 ‘처방’으로 개정하되,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험성 또는 부작용이 의심될 때에는 자신의 관리 아래 의료기사가 해당업무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제3조의2제2항 신설) 안을 입법발의 했다.

이보다 훨씬 앞서 2006년 4월 23일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은 물리치료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가 아닌 ‘처방 또는 의뢰’를 받도록 했다.





## 중앙회소식

### 35차 IFBLS, 60주년 종합학술대회 준비위 기원진 대회 조직위원장에 위촉장



제35차 IFBLS 및 창립 6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 운영준비위원회가 기원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17일 협회 회관 5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회의에선 2022년 IFBLS 및 60주년 종합학술대회 준비를 총괄할 조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안 및 차후 준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장인호 협회장은 기원진 IFBLS 조직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 임상병리교육평가원 닷 올린다! 54개 대학 학과 교육 질적 제고 → 임상병리사 역량강화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 개원 준비 회의가 5월 22일 11시부터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102호 회의실에서 열렸다.

평가원 오픈 준비 회의에는 평가원 이사장을 맡은 장인호 협회장을 비롯해 김충환 평가원장(마산대), 황석연 평가단장(대전대)과 중앙회 김상원 행정부회장,

김대중 공보부회장, 하성일 재무이사, 황삼노 교육이사와 평가원 각 위원장 및 위원 등이 참석했다.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은 전국 54개 대학 임상병리학과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현장 요구에 부응하는 역량을 갖춘 임상병리사 배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어, △시범 평가를 통한 인증 기준 고도화 △인증 평가 핵심 역량 지표 검토 연구 △학제 통합 위한 공통 교과 도출 위한 기반 구축 등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개원 준비 회의에선 평가원 중장기 발전 계획과 교육부 인증을 위한 TF 위원회 추진 및 교육평가원 추진 확산 일정 계획 등에 대한 보고 및 논의가 진행됐다.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은 오는 6월 19일 역사적인 개원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간다.

### 정무위원회, 임상병리사 권익 증진 활동 협의



제1차 정무위원회가 5월 7일 저녁 7시 협회 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위원회에선 박종석 위원장에 대한 위촉식 수여에 이어, 임상병리사 결집 관련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의 간담회 추진, 임상병리사 권익 향상을 위한 대국회 협력활동 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Brightek**  
(주)브라이텍



‘전 세계 점유율 압도적 1위’의  
믿을 수 있는 염색성

4분 30초의 초고속 염색 / 전자동으로 진행되는 인텔리전트 클리닝 / 자동 시약량 모니터링 / Cytocentrifuge 기능 / 다양한 염색성 저장 및 편리한 사용 / 시간당 400매의 고속처리 / 폐수 용기 모니터링 / 염색데이터 보호 기능 / 추적관리기능 데이터 저장 및 전송

■ 그람염색기 ■ 결핵염색기 ■ 혈액염색기 ■ 세포염색기(New)

Aerospray® Slide Stainer / Cytocentrifuge



수입원: (주)브라이텍

Tel: 02-948-8246 Fax: 02-948-7559 Email: cs.brightek@gmail.com Web: www.brightek.co.kr

협력사

(주)성현메디텍 / 대왕약품 / 동방메디텍 / (주)동성메디칼 / 프라임메디텍 / 길림 / (주)하메스

# 장인호 중앙회장 주요 활동 및 동정

## 이원의료재단 방문, 검사 장비 연구 회원 격려



장인호 협회장은 5월 12일 이원의료재단을 방문, 회원들을 만나 최신화된 검사 장비와 시설을 둘러보고 코로나19 진단 능력 향상을 위해 애쓰는 회원들을 격려했다.

전자동화 냉장장치와 AI 자동 로봇을 이용한 검체 운송 시스템 등을 살펴보며 기술 발전에 놀라움을 표한 장 협회장은 각 검사실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회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유익한 대화를 나눴다.

장 협회장은 서한익 이원의료재단 상무를 만나 수탁 업체 가격 인하 경쟁 관련 자세한 현 상황에 대해 답소를 나누었다. 사안에 대한 심각성과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오갔다.

이 자리에선 가격을 무분별하게 할인할 경우 검사 질 저하 및 정도 관리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결과적으로 인력 축소에 따른 업무 환경 악화까지 빚어진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서 상무는 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로부터 수상한 공로상 상금을 암 투병 중인 두 명의 회원에게 기부하는 등 임상병리사로서 선행의 귀감이 되는 회원이다. 이런 응원에도 한 분이 최근에 운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샀다.

## 당진종합병원 · 당진시 보건소 찾아

장인호 협회장은 5월 14일 당진종합병원 및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당진시 보건소를 차례로 방문, 코로나19 극복에 여념이 없는 회원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당진 방문에는 주호택 팀장과 임혜숙 분회장이 자리를 같이했다.

## 보건의료인력실태 연구 용역 간담회 회원 권익 증진 차원 연구 적극 협조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선정되면서, 공단은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보건의료인력실태 조사 연구용역 공모'에

따른 보건의료 각 직능단체와 간담회를 잇달아 갖고 폭넓은 의견 수렴에 나섰다.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인력실태 용역 공모 지원 관련 간담회 2차 회의에서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협회 입장을 밝혔으며, 차후 건보공단이 연구 공모에 선정되어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협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여 회원 권익 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로 했다.

5월 17일 건보공단 동대문지사에서 열린 인력실태조사 용역 공모 지원 관련 간담회에는 11개 보건의료인력 단체가 참석했으며, 협회 조미숙 사무국장이 자리를 같이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근무환경 개선,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학술발전위, 종합학술대회 세부 운영 협의

제3차 학술발전위원회(위원장 김건한)는 5월 21일 회의를 열어 제59회 종합학술대회 세부 운영 및 기획안에 대하여 협의했다.



올해 종합학술대회는 오는 10월 16일(토)~17일(일) 이틀간 코로나 시대 'Inside Corona Insight Korea'를 슬로건으로, 경주에서 '천 년고도에서 대변혁의 서막을 열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 중앙회 활동보고서

2021.05.01 ~ 05.31

- ▶ 5월 3일 : 사이버 VOD 및 라이브포럼 진행 관련 업체 미팅(굿데이미디어)
- ▶ 5월 6일 : 종합학술대회 학술분과 회의 진행
- ▶ 5월 7일 : 국제부 업무회의/정무위원회 회의/보험위원회 회의 진행
- ▶ 5월 11일 : 회관운영위원회 회의 진행
- ▶ 5월 12일 : 공보부 회의/재무부 회의 진행
- ▶ 5월 13일 : 462차 상임이사회의/감염관리위원회 회의/학술부 회의 진행
- ▶ 5월 14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방문-유행상 부회장 참석
- ▶ 5월 15일 : 재건축추진 위원회(T/F) 회의/공보부 회의 진행
- ▶ 5월 17일 : IFBLS 조직위원회 사전 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간담회 참석
- ▶ 5월 18일 : 감사 회의
- ▶ 5월 21일 : 제3차 학술발전위원회 회의/국제부 회의/제3차 총무부 회의 진행
- ▶ 5월 22일 : 임평원 관련 회의
- ▶ 5월 25일 : 생리학검사영역 발전위원회
- ▶ 5월 26일 : 제2차 법제위원회 회의
- ▶ 5월 29일 : 행정실무워크숍

### 장인호 협회장 활동보고서

2021.05.01 ~ 05.31

- ▶ 5월 3일 : 사무국 직원(기자) 면접
- ▶ 5월 6일 : 회장단 회의
- ▶ 5월 7일 : 정무위원회 회의 및 보험위원회 회의
- ▶ 5월 10일 : 국가시험원 시험위원회 회의
- ▶ 5월 12일 : (의)이원의료재단 방문
- ▶ 5월 13일 : 462차 상임이사회의 진행
- ▶ 5월 14일 : 당진종합병원/당진시보건소 회원 격려 방문
- ▶ 5월 15일 : 재건축추진위원회(T/F)회의 참석
- ▶ 5월 17일 : IFBLS 조직위원회 사전 회의 참석
- ▶ 5월 18일 : 감사 회의 참석
- ▶ 5월 20일 : 의기총 긴급 대책 회의 참석
- ▶ 5월 22일 : 임평원 개원 관련 회의 참석
- ▶ 5월 25일 : 생리학검사영역 발전위원회
- ▶ 5월 26일 : 제2차 법제위원회 회의
- ▶ 5월 29일 : 행정실무워크숍

인천광역시회

**‘사랑의 헌혈 릴레이 100’ 캠페인 전개**  
**인천광역시회, 인천혈액원과**  
**헌혈 부족 해결 협약**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헌혈 감소가 혈액 수급난으로 이어져 환자 진료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인천광역시회(회장 김한규)는 회원들의 헌혈 봉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랑의 헌혈릴레이 100’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모바일 커피 교환권 증정 이벤트와 헌혈증 기부 행사도 함께 진행

하여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인천시회는 5월 4일 적십자 인천 혈액원과 생명 나눔 업무 협약을 맺고 정기적인 헌혈 동참, 생명 나눔 캠페인 등으로 환자 사랑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로 했다.

협약 체결에서 김한규 회장은 “임상병리사는 헌혈된 혈액이 의료기관에서 어떻게 소중한게 쓰여 생명을 구하는지 가장 잘 알고 있다”며 “전국 회원들의 릴레이 헌혈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천혈액원에서는 감사의 뜻으로 헌혈한 인천시회 회원들의 이름을 퍼즐로 만들어 감사패와 함께 증정하기로 했다.



분과학회

**임상핵의학검사학회 온라인학술대회**  
**IN-VITRO 논문, 검체검사기기**  
**정도관리 등 특강**

제63차 대한핵의학기술학회(대한방사선사협회 및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통합 학회) 온라인 학술대회가 5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온라인(닥터빌 Webinar)으로 열렸다.

온라인으로 중계된 개회식에서 장인호 협회장은 이흥재 학회장을 비롯해 방사분과 이경재 학회장, 임상분과 장현영 학회장 등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임상핵의학검사학회에 대해 장 협회장은 “국내 최초로 국제공인 ISO 15189를 인증받고 지속적인 교육과 국내의 활동을 통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며, 핵의학기술학회가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 코로나 이후 시대적 변화 요구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학술대회에선 IN-VITRO 논문 발표에 이어 △검체검사기기정도관리-서울아산병원 김성호 △방사성의약품의 임상적 활용 및 섭취기전-신촌세브란스병원 박준영 △방사성의약품주사-서울대병원 김연희 간호사 △핵의학정도관리-분당서울대병원 이호영 교수 등의 특강이 있었다.

경북도회

**첫 종합학술대회 하이브리드**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 채택**  
**경북도회 59회 대회 성공개최 다짐 워크숍**



경북도회(회장 조대현)는 제59회 종합학술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집행부 워크숍을 4월 24일 씨젠의료재단 대구경북검사센터 회의실에서 가졌다. 워크숍에는 조대현 도회장을 비롯하여

27대 신임 집행부와 지역분회장이 참석하였다. 모임에선 신임 집행부 임명장 수여 및 종합학술대회 조직위원장 및 운영위원장 위촉장 수여가 있었다.

조 도회장은 10월 16~17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지역 처음으로 개최하는 종합학술대회를 집행부와 지역분회장들이 힘을 모아 하이브리드(대면-비대면) 방식으로 빈틈없이 준비함으로써 경북도회 임상병리사들의 단합된 모습과 역량을 보여줄 것을 다짐했다.

부산광역시회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서**  
**검색되는 ‘카드뉴스’ 시작**



부산광역시회(회장 황원주)는 5월 11일 이사회를 열어 시회 공약인 ‘변화를 바로 인도하도록 하는 정보 공유 수단’의 일환으로 새로운 뉴스 매뉴얼인 카드 뉴스를 제작, 발표하여 회원들에게 접근성을 높여 공유의 폭이 확대되도록 했다.

이번 카드 뉴스는 보건복지부가 시행에 들어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내용으로 장식됐다. 부산시회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검색하면 들어갈 수 있다.

광주광역시회

**5.18 민주광장서 마스크 나눔 진행**



광주광역시회(회장 서정훈)는 5월 2일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마스크나눔행사를 전개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에 걸쳐 준비한 마스크 500개를 모두 배부했으며, 5월 22일엔 광주 광천터미널 유스퀘어광장(오전)

과 광주송정역광장(오후)에서 2차 행사를 실시했다.

광주시회는 임상병리사가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통해 코로나 극복에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리고, 동시에 마스크 나눔을 통해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함으로써 코로나19를 이겨내며, 항상 그 곁에 임상병리사가 있음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행사를 준비했다.

특히 5.18 기념일을 앞둔 상황에서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장소로 유명인구가 많은 곳을 택하여 마스크 나눔 이벤트를 진행했다.

# 세상을 바꾸는 “Broadcast Yourself”



## 가칭 ‘KAMT 특공대’ 유튜브 채널 추진

‘내 손 안의 작은 TV’,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유튜브 채널이 추진된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유튜브에 가칭 ‘KAMT 특공대’ 채널을 마련하여 회원들에게 가장 빠르게 정보를 공유하고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해나가는 데 한발 더 다가서기로 했다.

“당신 자신을 방송하세요(Broadcast Yourself!)”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선보이는 유튜브는 경쟁상대가 오로지 방송이라고 할 정도로 현대 1인 미디어의 총아로 불린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책 및 학술활동 동정 등 모든 소식과 의견 공지, 공유 사항을 시공간을 완전히 초월하여 시시때때로 전파할 계획이다. 이로써 임상병리학이라는 한배를 탄 동지로서 굳건한 결속력과 단합을 다지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협회는 유튜브 채널 추진에 따르는 세부 사항들을 관련 위원회를 중심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효과 및 참여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립하고,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는 대로 순차적으로 시험 및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미국의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는 온라인 결제 서비스 업체 페이팔에서 함께 활동하던 스티브 첸, 채드 헐리, 자베드 카림이 2005년 2월 14일 공동 창업했다. 유튜브라는 이름은 당신(You)과 브라운관(Tube, 텔레비전)이라는 단어의 합성어다. 마음에 드는 동영상과 음악을 감상하고, 직접 만든 콘텐츠를 업로드하여 동료, 친구, 가족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가 지난해 10월 8일 발표한 국내 유튜브 앱 사용자 현황에 따르면 9월 국내 사용자수(MAU)는 4,000만 명을 돌파한 4,319만 명을 기록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5178만 명)의 83%에 달하는 수치다. 국민 10명 중 8명은 유튜브를 이용하는 셈이다.

유튜브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는 등 서로 간의 접촉이 줄어든 가운데, 다양한 사람과 주고받는 재미, 정보 등을 유튜브

에서 찾는 이들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임상병리사협회는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59회 종합학술대회 홍보 및 참여 독려를 위하여 “2021 KAMT Gyeongju Hybrid Congress”를 타이틀로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 조회수를 높여가고 있다.



www.choongil.com



### 큰 결실이 되어...

좋은 밭의 씨앗은 몇십 배의 결실로 열매를 맺습니다.  
고객의 사랑과 관심의 토양 위에서 성장해 온 충일화학은  
'감사의 마음'을 실어 더욱 풍성한 결실로  
고객의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 CHEMISTRY DxC 880I, DxC 800, AU Series
- IMMUNOASSAY DxI 800
- HEMATOLOGY DxH 800 / LH1500 Workcell System / LH 780 / LH 750
- SERUM PROTEIN IMAGE 800
- HEMOSTASIS ACL TOP / TOP 500 CTS, ACL ELITE PRO, ACL Family
- LAB Automation System
- Open Clinical Chemistry Reagent
- IMMUNOLOGY ELISA Reagent
- MAST ALLERGY
- BD Tube & Syringe, BACTEC FX, MGIT 960/320
- GYNETICS Follicle Aspiration Needles
- Molecular Diagno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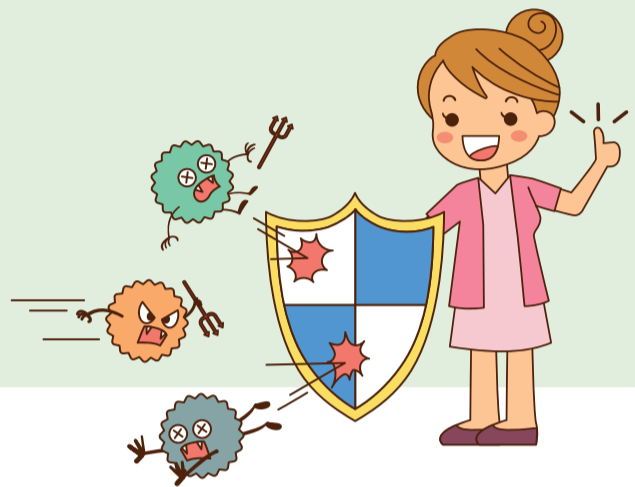


본사 : 서울시 성동구 도선동 330번지  
T. 02-2294-6411 / 080-021-7171 F. 02-2293-6556

# 획득면역의 정립과정



김대중 공보부회장  
(동남보건대학교)



**01** 피하조직에 있는 ①선천면역을 담당하는 수지상세포, 대식세포 등이 ②이물질(항원)을 탐식한 후에 <선천 면역에 관여하는 세포는?> <항원>

[내가 성공했을 때 나 혼자 잘나서 된 것만은 아니다. 부모님께도 감사함을 가져야 한다. 즉 획득면역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선천면역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

**02** 림프관을 타고 ③2차림프조직인 비장이나, 림프절에서 ④주조직복합체(Major Histocompatibility Complex, MHC)에 ⑤가공된 항원의 정보를 ⑥협조T-lymphocyte(T-helper cell, T-h)에게 제시하면, <림프구의 종류, Tcell의 종류 1,2차림프조직>, <MHC란?>

**03** T-helper cell 은 ⑦세포막의 표면 단백질(cluster of Differentiation, CD)로 항원 정보를 인식한 후 성숙한 T-helper세포로 분화 후 ⑧사이토카인을 이용하여 B림프구와 Tc세포에게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CD란?>, <cytokine>

**04** 체액(림프절) 속에 있는 대부분의 ⑨B림프구는 형질세포(plasma cell)로 분화되어 ⑩특이 항체를 생산한 후 혈액속으로 분비한다. <B-cell이란?>, <항체>

**05** 혈액 속에 분비된 특이항체는 항원과 특이 결합이 일어나면 응집이나 침강하여 외부항원이 혈액 속에서 활발하게 못 움직이게 하고 항체의 Fc 부위에 ⑪보체가 결합하고, 활성화되면서 항원을 파괴하게 된다. <보체>

**06** 1% 정도의 B림프구는 형질세포로 분화하지 않고 외부 항원의 정보를 지닌 채 기억세포로 되어 림프절에서 대기하며 살게 된다. (이 기억세포가 기왕 (既往)반응을 일으킨다) <획득면역반응중 체액성반응>

**07** Thelper cell 로부터 사이토카인을 받은 미성숙 killer cell은 분화되어 성숙한 killer cell이 된다. 성숙한 killer cell 은 표면단백질 CD8을 이용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가 MHC1에 ⑫가공된 항원 정보를 인식하게되고 단백질분해효소로 감염된 세포를 파괴하면 대식세포의 먹이가 되어 이물질(항원)이 우리 몸에 침투전과 같은 환경이 되는 것으로 항상성을 유지하게 된다. <획득면역반응중 세포성반응>

① 선천면역을 담당하는 세포 : 백혈구 중 호중구와 단구가 대부분이다. 어떻게 선천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는 이물질인 것을 인식할까? 병원체를 감지하고 경보를 보내는 구조인 세포표면 수용체인 TLR(Toll-like receptor: 다양한 패턴 인식 수용체, 항원임을 감지해서 경보를 내보내기 위한 수용체)은 주로 식세포가 가지고 있다. (현재 10종류 정도 발견됨)

② 이물질(항원) : 면역세포를 자극하여 항체를 생성하는 물질, 면역원성이 큰 물질이 항체생성을 잘 하는데 당단백질이 대표적이다.

③ 2차림프조직인 비장이나, 림프절 : 1차림프조직은 골수와 흉관으로 B세포와 T세포가 태어나고 훈련을 받은 곳. 2차림프조직은 비장, 편도, 림프절, 맹장, 페이머스 패취. 항원과 실제로 접하게 되는 장소로서 항원제시세포가 제공하는 가공된 항원 혹은 자연산의 항원을 만나 분화되어 면역반응이 일어나는 장소이다.

④ 주조직복합체(Major Histocompatibility Complex, MHC) : MHC는 1과 2형이 있는데 1형은 핵이 있는 세포는 모두 가지고 있어서 성숙한 적혈구는 없다. 감염된 세포가 이 단백질 위에 가공된 항원의 정보를 올려놓으면 killer cell이라고 불리는 Tc(Cytotoxic T-lymphocyte, CTL) 세포가 비자기(非自己) 항원을 인지하게 되고 파괴 시킨다. 2형은 보통 항원을 제시하는 세포(APc: Antigen presenting cell)인 수지상세포, 대식세포, 랑게르한스세포 등이 가지고 있다. 물론 핵이 있으므로 1형도 있다.

⑤ 가공된 항원 : Tcell은 항원제시세포가 항원을 탐식한 후 용해소체로 분해하고 소화 후 자신의 단백질(MHC-II)에 항원을 제시하므로 이렇게 표현하였다. 또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도 침입한 이물질을 killer cell에게 알리고자 분해한 후 자신의 단백질(MHC-I)에 침입한 이물질의 정보를 올려놓는다.

⑥ Tcell의 종류 : 골수에서 만들어져서(Bcell과 고향은 같다) Thymus(흉선)에서 자기와 반응하면 절대 안 된다는 교육을 받게 되는데 대부분은 파괴되고 3%정도만 살아남아 면역반응을 하게 된다.

Th-cell = T helper cell = 보조 T 림프구  
Tc-cell = cytotoxic T cell = 독성 T 림프구  
Ts-cell = T suppressor cell = 억제 T 림프구

⑦ 세포막의 표면 단백질(cluster of Differentiation, CD) : 림프구에는 표면에 자신의 고유한 단백질이 있는데 CD항원이라고 하고 현재 350 여종이 발견되었다.

⑧ 사이토카인(cytokine) : ‘cyto’는 세포의 뜻이고, kine은 작용한다는 의미로 세포끼리 작용한다는 의미이다. 비슷한 용어로 interleukine(백혈구 사이의), lymphokine(림프구의 작용)으로 혼용되는데 Th-cell과 Bcell 혹은 Th-cell과 Tc-cell 사이에서 작용되는 단백질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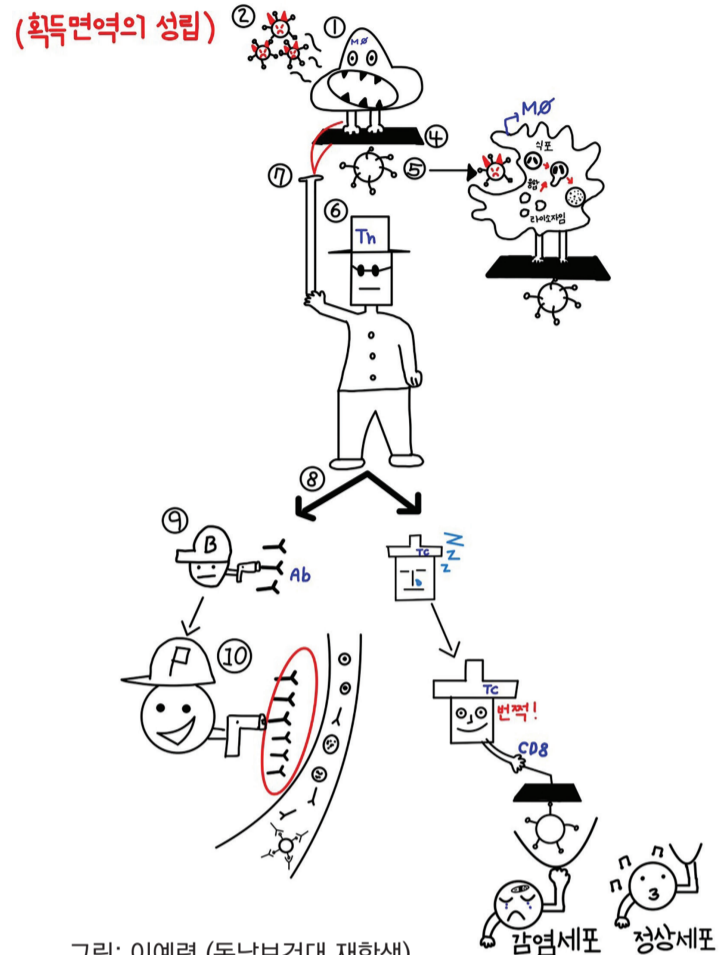
⑨ B림프구 : BCR(B cell receptor)은 CD19 항원인데 TCR(T cell receptor)은 T세포에서 분리되지 않지만 BCR은 성숙하게 되면 분리되어 체액 속 특이항체가 된다.

⑩ 특이 항체 : 해당되는 항원 때문에 만들어진 항체는 대부분 그 항원과 결합하기 때문에 특이결합(specific bind)이라고 하고 만약 다른 항원에 있는 공통 항원과도 반응하면 비특이 결합(Non specific bind)이라고 한다.

⑪ 보체 : 항체의 보체가 결합하는 부위(Fc, Fixation of Complement)에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활성화 되면서 결합하다가 C5b)C6)C7)C8)C9는 MAC(membrane attack complex)로 되어 항원의 세포막을 용해한다.

항체 없이도 활성화되는 보체의 부경로와 세균의 세포막에 공통으로 있는 mannose에 C4가 활성화되는 Lectin경로가 있다.

⑫ 가공된 항원 :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가 표면단백질인 MHC-I에 항원을 제시한다.



# 전문 직장인으로서 ‘저널 리뷰’의 중요성 임상병리사로서 전문가 되려면 필수



구본경 임상혈액검사학회장 (삼성서울병원)



학술 저널은 연구와 실무 간의 긴밀한 연결 고리가 되며, 학술 저널을 통해 확산된 지식은 임상병리검사학(임상검사과학)의 과학적 기반을 구축하고 발전시키는 기초가 된다. 인터넷의 성장 발달과 더불어 지식을 공유하는 형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인쇄 형식으로만 제공되던 많은 학술 저널들이 온라인을 통해 회원들에게 공개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만 발행되는 저널(웹진)도 있다. 대부분의 전문 저널은 개인의 구매 또는 기관의 구독 신청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대다수이나, “한국연구재단의 KCI 등재/

등재후보학술지인 경우 학술 저널 정책에 따라 오픈 액세스(Open Access)하면 누구든지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즉 저작권은 저자에게서 학회로 이전하고 다시 학회는 KCI 등재/등재후보학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 공개한다는 점이다.

학술 저널은 네이버나 다음의 국내외 논문 검색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구글 및 구글 스칼라를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 우측 하단 대한임상검사과학회 > KJCLS(영문 페이지) - Journal Archive 또

는 학술지(국문 페이지) - 최근 논문”으로 접속하면 논문을 볼 수 있다. 구글에서 직접 대한임상검사과학회를 검색하여 찾아볼 수도 있다.

구글에서 한국학술지인용색인을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해, KCI 통합검색창에 키워드(예를 들면 혈액 점도, 눈 초음파, 질환 등)를 입력한 후 옆의 돋보기를 누르면 여러 학회지의 논문이 나온다. 제목 밑에 “KCI 원문”을 클릭하면 PDF가 열린다. 만약 KCI 원문이 없을 경우에는 제목을 누르고 우측 “원문미리보기”를 누르면 PDF가 열린다.

혐오 표현

#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기에..

혐오 표현이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인식되면서 이제는 많은 언론과 단체, 기관이 문제점을 조명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의 나를 한번 돌아보자. 잘못된 인식이 반영된 성차별 언어를 사용하거나, 우리 사회 소수자 및 약자를 색안경을 낀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모든 변화와 행동은 문제를 깨닫는 것에서 비롯된다. 바로 이런 고민을 할 때, 나 역시 변화에 동참하고 있음을 기억하자.

일상 속 많은 차별적인 용어들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배려는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김철 공보이사 (강남세브란스병원)

Case 1 생활 속 만연한 성차별 표현

“오르너만에 보니 예뻐버지시겠네요” ▶ “건강해 보이시네요.”, “얼굴 좋아시네요?”

남녀를 불문하고 칭찬이라도 외모를 평가하는 행동은 대표적인 성차별적 표현이다. 특히 각종 미디어에서 아직도 쉽게 볼 수 있는 “쭉쭉 뺑뺑”, “뒤태 여신” 등의 표현은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하고 성적대상화하고 있다. 사회의 고정관념이 반영된 외모 칭찬 대신 다른 장점을 찾아 표현해보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어떨까.

“여자가 조심하지 못하게.”, “힘은 남자가 써야지.” ▶ “다치지 않게 조심해.”, “혼자서 할 수 있겠어?”

성 역할 고정관념을 반영하고 있는 표현도 성차별 표현에 포함된다. “여자라면 ~해야지”, “남자라면 ~해야지” 등의 표현은 성별에 따른 역할과 한계를 만들어 놓는다. “여자아이는 핑크색, 남자아이는 파란색” 등의 표현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말들을 주의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쓴다면 어느 순간 사실로 굳어지게 된다.

“여직원에게 맡겨놨어요.” ▶ “직원에게 맡겨놨어요.”

‘여직원’처럼 직업에 성별 구분을 두어 부르는 것도 차별적 발언이 될 수 있다. 특히 여성에게만 ‘여’라는 성별을 붙이는 것은 ‘남성이 표준’이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발언이기도 하다.

Case 2 의식하지 못했던 차별(비하) 표현

“나 결점 장애 왔어.” ▶ “나 결점을 내리기가 어려워.”

무언가에 ‘장애’를 붙이는 건 ‘부족함’, ‘열등감’을 의미하고, 이는 장애인이 부족하고 열등한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 된다. 마찬가지로 “병어리가 됐다”, “치매가 왔냐” 등도 해당 질병을 가진 사람을 차별하고 비하하는 표현임을 기억해야 한다.

“오~ 저 흑형(흑인) 멋있는데.” ▶ “오~ 저 사람 멋있는데.”

최근 미디어에서 흑인 분장 퍼포먼스가 인종차별이라는 이유로 주목을 받았다. 유색인종의 피부색을 굳이 언급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 대한 차별적 인식의 표현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과거에는 개그 프로그램에서 흑인 분장에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면 재미를 끌기도 했으나, 이제는 이러한 개그가 인종차별이라며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Case 3 알고 보면 이런 것도 혐오 표현

“오린이”, “켈린이” ▶ “오리 초보”, “켈스 입문자”

미숙한 분야 뒤에 ‘어린이’를 뜻하는 ‘~린이’를 붙인 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이 말에 ‘어린이는 미숙한 존재, 불완전한 존재’라는, 어린이에 대한 차별적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며, ‘초보’, ‘입문자’ 등의 표현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

“외국인은 범죄 위험이 높아.” ▶ “외국인만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야.”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잘못된 차별적 인식을 담고 있다면 혐오 표현이다. 외국인이나 성소수자 등 우리 사회의 소수를 이루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이러한 언급은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다. 조선족이나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난 표현,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압박 역시 또 하나의 혐오의 말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제천 중고생 대상 '진단검사의 세계' 개강 제천행복교육지구-세명대 연계하여 교과 운영

충북 제천교육지원청 행복교육센터는 5월 13일 오후 6시 세명대학교 이학관 504호에서 제천행복교육지구 행복동아리 '진단검사의 세계'를 개강했다.

세명대 임상병리학과 교수진 8명이 모두 참여하는 제천행복교육지구 행복동아리 '진단검사의 세계'에서는 11월 30일까지 매월 2회 진로체험활동이 운영된다.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임상병리학과에 관심 있는 청소년 54명이 참여한다.

세명대학교 임상병리학과는 유성률 교수를 중심으로 지난 3월부터 제천단양지역연합 고교공동교육과정 생명과학실험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7월에 종료되는 고교공동교육과정 생명과학실험 수업과 연계해 코로나19 시기에 화두인 진단검사의 세계에 대해 관심 있는 지역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행복동아리사업을 통해 장기적인 학생 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한다.

제천행복교육지구는 올 3월부터 세명대와 연계해 제천단양지역연합 고교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천 시내 고등학생 50명이 수강하고 있다.



제천교육지원청 제공

## 대구보건대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 대학 선정 30억 투입... 임상병리사 집중 육성

대구보건대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매년 10억 원씩 총 3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대구보건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건 의료·헬스케어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발맞춰 임상병리사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메디 시티'로 각광받는 대구가 추진하는 맞춤형 헬스케어(맞춤형 진단검사 전공)분야에서 첨단 임상검사기술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세대 맞춤형 헬스케어를 선도할 'STAR(Smart Technology in Advanced diagnostic with Revolution)' 인재 양성이 목표다. 바이오 진단검사 전문가 과정과 스마트 의료기기 전문가 과정을 신설해 맞춤형 헬스케어에 특화된 혁신 교육모형을 구축한다.

취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도 본격화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취업과 진로 기회도 제공된다.

남성희 총장은 "대구보건대는 올해 개교 50주년을 맞아 보건 의료 외길 50년의 탄탄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신산업 특화 맞춤형 보건 의료·헬스케어산업 교육의 메카 대학으로 성장하도록 교육혁신의 선도적 모형을 창출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해 신산업 특화 우수 전문기술인재 양성 거점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보건대 제공(실험 교육 모습)

## AZ백신 접종자 500명에 화이자 등 '교차 접종' 임상시험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필요성·효과성에 신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종류를 달리해 접종하는 이른바 '교차 접종'에 대한 각국의 연구가 활발한 가운데 정부도 조만간 관련 임상시험에 나선다.

이유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 백신정보분석팀장은 5월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질병관리청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국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자들에게 대해 화이자 백신 등 교차 접종 임상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상 시험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허가된 다른 백신을 접종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임상 시험에는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다양한 접종자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2차 접종 백신을 다르게 했을 때 면역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혹은 이상 반응이 나타나거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을 두루 살펴볼 것으로 관측된다.

이 팀장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로 접종한 군을 대상으로 국내 허가 백신 등을 2차 접종한 뒤 분석할 예정이며, 중화항체와 결합항체, 면역세포(T-cell) 등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연구는 예방접종의 안전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라면서 "백신 허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400~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연구를 기획·준비하는 중이며, 구체적인 시기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우리 방역 당국은 현재 교차 접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독일은 60세 이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자, 프랑스는 55세 이하 1차 접종자에게 화이자나 모더나 등 mRNA계열의 백신으로 2차 접종을 하기로 한 바 있다. 또 영국, 이탈리아, 러시아, 중국 등에서도 현재 교차 접종과 관련한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추진단은 현재로서는 1·2차 백신을 동일한 종류로 맞는 현행 원칙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남 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30세 미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자 약 13만 명에게 다른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따라 2차 접종도 동일하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접종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국내외적으로 교차 접종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기에 그 결과를 주시하고 있으며, 국제적 동향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의학적 근거가 조금 더 마련된다면 국내에서도 전문가 검토를 거쳐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 정부-의약계, 보건의료발전협의회 개최 ‘비급여 의무화’ 등 현안 논의

정부와 6개 의약 단체가 만나 논란을 빚고 있는 비급여 보고제도, 대체조제, 간호법 제정 법안 등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홍주의 대한한 의사 협회장이 처음으로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전 10시 강도태 제2차관 주재로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에서 ‘보건 의료발전협의회 12차 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비급여 보고제도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을 논의했으며 정부는 향후 의료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비급여 보고 관련, 의료계는 현장의 부담 등 우려를 개진했다. 정부는 비급여 보고 효과와 현장 부담 등 의료계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은 관련 지역 간 분과협의회(의협, 병협, 약사회)를 운영, 세부 논의를 갖기로 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보건의료발전협의회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등 보건의료 발전방안 논의 △법령안에 대한 의견 조율 △지역 간 업무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 중요한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보건의료발전협의회에서 보건의료분야 중요 사항을 논의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관련 지역 간 집중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내 분과협의회를 구성,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보건의료발전협의회를 비롯해 의정협의회, 이용자협의회 등 각 계와 다양한 소통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각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 중 추진 가능한 사항들은 금년 중 수립 예정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도태 2차관은 먼저 “그동안 의료계에서 코로나 대응과 차질 없는 예방접종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이어 방역과 환자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들을 위해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960억), 의료기관 방역인력(348억), 약국 비대면 체온기(82억), 감염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30억) 예산 확보를 부연했다.

강 차관은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인들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적정 의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 “ 2021년 신임 임원 및 승진 직원 임명장 수여식 성료 ”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재)씨젠의료재단(이사장 천중기)은 5월 3일 본원에서 신임 임원 및 승진 임·직원 170여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임원 선임과 임직원 정기 승진은 업무 성과 및 개선 실적, 타 부문과의 협업 능력, 리더십, 미래 역량 등을 평가해 5월 초 진행된다.



왼쪽부터 강희용 이사(부장→이사), 박이선 이사(수석연구원→이사), 천중기 이사장, 엄을용 이사(부장→이사)

(재)씨젠의료재단 소개

**“(재)씨젠의료재단은 품질 완벽주의를 추구합니다!”**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재)씨젠의료재단은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의, 석박사, 임상병리사 등 약 900명의 임직원들이 최신 기술이 집약된 검사 장비를 활용하여 전국의 병·의원이 요청한 임상진료 및 의학연구를 위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여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2021년! 감상평 이벤트

여러분의 병리협보 감상평을 보내주세요!

## 병리협보는 정회원 분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호 병리협보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의 감상평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총 2분을 추천해 소정의 기념품(4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다음 병리협보에 게재됩니다.

### [제460호 당첨자]

#### 이번 호 가장 좋았던 기사

심장초음파 검사 주체는 임상병리사!

● **곽민정 회원:** 저희 병원도 심장초음파 검사를 하고 있어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우리의 권리 관련 기사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임상병리사 선생님이 되어 병원에서 근무하는 게 부모님의 큰 기쁨입니다. 심장초음파 검사 주체는 임상병리사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 1) 접수기한: 2021년 6월 24일까지 도착
- 2) 접수방법: 접수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이메일 (kamtreporter@daum.net)로 발송
- 3) 접수양식 - 이번 호 가장 좋았던 기사  
- 해당 기사에 대한 간단한 의견  
- 개인정보: 성명, 면허번호, 상품을 받으실 주소

#### 이번 호 가장 좋았던 기사

보수교육 위원회 Q&A

● **김문정 회원:** 근무하는 병원에서 매년 아동학대예방교육, 감염관리교육 등 여러 가지를 받는데, 이 기사가 없었으면 '1년에 한 번씩 받는데 뭘.' 하고 지나쳤을 것 같습니다. 물론 홈페이지나 협보에 추후에도 공지되겠지만, 면허 신고 시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한다는 정보는 저희 같은 중소병원에서는 협회나 홈페이지 아니면 알 수 없기에 너무 유용한 소식이었습니다.

## 회원동정

### 동정 김민호, 손재철, 위준영 회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김민호 공중보건검사항화회장(서울 서대문구보건소),  
손재철 충북도회 부회장(충북대병원 호흡기센터),  
위준영 광주시회 사업부회장(조선대병원) 보건복지  
부장관 표창



김민호



손재철



위준영

### 인사 황원기 충북도회 북부분회장

2021년 5월 제천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실장 임명

## 신한대학교 학점은행제 임상병리학 4년제 학사 학위 취득 1년 과정 모집

편리한 접근성 - 망월사역 (전철역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  
장학혜택 - 다양한 장학혜택  
역사성 - 50년의 역사와 전통



신한대학교

### 모집전공

전공명	정원	지원자격
임상병리학전공	80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예정자)

모집기간 2021.06.28.(월)~2021.08.13.(금)  
등록기간 2021.08.18.(수)~2021.08.20.(금)  
납부방법 계좌이체(가상계좌)  
개강예정일 2021.09.01.(수)  
전형방법 선착순모집  
접수처 신한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문의 031)870-3813, 3816

\* 모집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취소 및 변경될 수 있음.  
(2021년 6월 중 <http://life.shinhan.ac.kr>에서 모집공고)

### 학점은행 모집과정

\*표시는 신한대학교 총장명의 학위취득

전공명 (1년과정)	정원	전공명(4년과정)	정원
임상병리학전공	80	*사회복지학전공	40
간호학전공	80	부동산학전공	40
방사선학전공	80	체육학전공	40
		사회복지현장실습	160

### 기타 모집과정

경기도 주관 사업 과정	정원	고용노동부사업	정원
귀농귀촌대학(토)	70	커피바리스타과정	15
조경가든대학(토)	40	직업상담사과정	15
시민정원사 (금)	30	조경기능사과정	15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Seegene Medical Foundation**  
 글로벌질병검사전문의료기관



부산경남검사센터



광주호남검사센터



(재)씨젠의료재단 본원



대구경북검사센터



카자흐스탄알마티 검사센터(SKL)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재)씨젠의료재단**은  
**검사 품질의 완벽을 추구**합니다



❖ 검사실 자동화(TLA) 시스템 구축



❖ ONE DAY 신속한 결과보고



❖ K-방역 최일선



❖ AI(인공지능) 등 최신기술 도입

씨젠의료재단 본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20  
 부산경남 검사센터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97  
 대구경북 검사센터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619  
 광주호남 검사센터 | 광주광역시 남구 효우로 200  
 카자흐스탄 알마티 검사센터(SKL) | Almaty, Kazakhstan

검사의리  
 학술문의

**1566-6500**

[www.seegenemedical.com](http://www.seegenemedical.com)